

욕망의 도시 평양에서 북한 미래를 보라

평양 자본주의 백과사전

주성하 지음



“지금 평양에는 서울 못지않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고 있다. 주택에 대한 평양 시민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택은 ‘자산’으로써 아늑한 보금자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북한에도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 북한에도 재건축 바람이 있고 투기 열풍이 있다.” (본문 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전후에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을 다녀온 인사들에 따르면 예전과 다르게 북한이 많이 달라졌다. 그만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실 북한만큼 이중적인 사회는 없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정권도, 주민도 면전에서 당과 수령을 이야기하지만 이면에는 자본주의적 욕망에 불들어 있기 때문이다.

동맹과 편견을 깨는 북한의 이야기를 묶은 ‘평양 자본주의 백과사전’이 나왔다. 저자는 평양 김일성대학을 나와 세 번 탈북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북송돼 6개 시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거리 풍경. 시민들이 청량음료 가게 앞에 줄지어 서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을 옮겨 다녔다. 이후 2002년 한국에 입국해 동아일보에 입사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성하 씨가 주인공이다.

저자는 억눌린 욕망이 분출하는 평양에서 북한의 미래를 보라고 강조한다. 책에는 “지금까지 듣고 본 북한 이야기는 다 잊어라”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알게 된다. 주 기자는 책을 쓰기 위해 현재 평양에 거주하는 주요 인사들과 긴밀하게 연락했고 최근까지 살다 온 탈북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즉 현지인이 말하는 평양을, 역시 평양에서 살다 온 기자가 글로 옮긴 것이다. 책에 담긴 내용은 이미 자본주의와 돼 있는 북한의 일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링크코트도 장마당에서 파는데요. 뭐, 명품 파는 상점은 평양에 정말 많아요. 싱가포르에서 암만 사치품 들어가야 고작 상

점 두 개잖아요. 빙산의 일각이죠.”

“제 아내는 가방, 화장품은 물론 잠옷까지 샀어요. 짝퐁 아니에요. 촉감으로도 딱 알아요. 아내가 사파이어 보석이 박힌 목걸이나 반지를 좋아해요. 저는 열두 달 탄생석 이름은 다 외우고 있어요. 하하. 평양에는 없는 명품이 거의 없는데 의외로 ‘루이비통’은 적어요. 아, 물론 짝퐁은 많아요.”

그렇다면 북한 청년남녀들의 연애와 결혼은 어떨까. 혼수는 현금이 최고다. 신랑 감조건으로 ‘군당지도원’을, 신부감조로는 ‘현대가재미’를 좋은 조건으로 친다. ‘군당지도원’ (군복무, 당원, 지식(대학), 예절, 돈)을 뜻하고 ‘현대가재미’ (현금, 대학, 가풍, 재간,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북한 주민은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

지 못한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성행위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 부부간에도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 관련한 것을 통제하면서도 비아그라를 노골적으로 장려한다. “노년이 먹으면 정력이 세지고, 아이가 먹으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이유에서다.

저자는 북한의 장마당은 점차 표준화되고 있다고 한다. “장마당엔 고양이 뿔 빼고 다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물품이 거래된다. 주 기자는 “한국의 대형마트를 방불케 하는 장마당은 단순한 상품 판매 장소를 넘어 가치를 지닌 모든 재화와 재능이 거래되는 북한식 시장경제의 일선”이라고 설명했다.

<북돋음·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김제동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살려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낸 헌법 독후감이다. 그는 헌법을 “할머니-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 문서이자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이 갑인 계약서이자 연애편지”라고 말한다.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라며 존엄을 일깨워주고, 억울한 일 당차서 말하고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헌법을 함께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나무의마음·1만6000원>

▲ 이 가지에서 저 그늘로=배경이 화려하거나 터전을 잃은 이들의 혼란과 고통을 함께 하려한다. 한국전쟁 이후 어지러운 사회 변화를 온몸으로 겪으며 개인의 상처뿐 아니라 사회 깊숙이 새겨진 상흔까지 파고들어 서정적 풍경을 시로 승화시켰다. <문학과지성사·9000원>

▲ 종교 없는 삶=미국에서 무종교성을 연구하는 필 주커먼이 무종교적 도덕성과 신념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지침을 전한다. 무종교인으로서의 삶과 증언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확신 없이 흩어져 있던 무종교적인 신념과 가치들을 확인하게 한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정체성과 믿음, 성향 면에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성과 인간애,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연대감,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서 핵심



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자세히 살펴본다. <판미동·1만8000원>

▲ SF, 포스트휴먼, 오토피아=“공각기동대”, ‘아키라’, ‘카우보이 비밥’, ‘2020 우주의 원더키디’, ‘녹색전차 해모수’ 등 197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과 일본의 SF 애니메이션을 들여다본다.

이 책은 유형과 관습에 따른 단순한 분류와 비교 작업을 넘어 SF 애니메이션 작품이 산출된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다각적으로 재검토한다. 책을 쓴 안승범 영화평론가는 작품을 ‘사건’으로 여기고 문화사 회학적 시각으로 살펴본다. 현실에 맞닿은 미래에 대해 성찰하고 한국과 일본의 SF 애니메이션이 꿈꾼 세계의 진면목을 만나게 된다. <문학수첩·1만4000원>

사람과 사람의 마음 이어주는 감동 선물

과자는 마음이다

윤영달 지음



“과자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감동의 선물이다.” “과자는 ‘동심’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과자를 ‘마음’이자 ‘동심’으로 표현한 이가 있다. 바로 한국인들이 즐겨먹는 과자 가운데 하나인 ‘조리퐁’과 ‘버터와플’을 발명한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

그가 이번에 크라운해태제과 이야기를 담은 책 ‘과자는 마음이다’를 발간했다. ‘마음으로 짓는 과자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단순한 경영서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에세이다.

원래 저자는 어릴 적 꿈이 자전거 가게 주인일 정도로 기계에 관심이 많았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22세 나이에

월간 문예지 ‘문학’을 창간할 만큼 문학 청년의 기질도 강했다. 그런 그는 유학 시절 미국인들이 즐겨 먹던 시리얼을 보고 ‘조리퐁’을 구상하게 된다. 기술력과 자본이 없던 1960년

대 한국의 과자인 빵튀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조리퐁’ 개발에 착수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그는 CEO이지만 예술에 대한 심미안이 남다르다. 회사 직원들이 눈 불룩을 조각하고, 과자 박스로 예술작품을 만들고, 대극장 무대에서 판소리와 가곡을 공연하며 자작시를 낭송하는 것은 그의 예술에 대한 관심과 무관치 않다. 예술지능(AQ)이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체득했기 때문

이다. 즉 경영 위기를 경험한 뒤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대금 소리를 듣고 음악의 치유 기능에 눈을 떴다고 한다.

지난 2005년 해태제과 인수했는데 당시 매출액 규모가 3배에 이른 ‘고래’였다는 사실은 알려진 얘기다. ‘고래’를 인수한 것은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조직이 느린 조직을 흡수하는 시대”라는 철학에서 기인했다. 저자는 두 회사 합병 후 직원들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 과자상자로 예술품을 만드는 ‘박스아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양사 직원이 실무는 물론 문학, 미술, 음악, 등산 등 다양한 분야를 동문수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직원이 아티스트가 되면 그들이 만드는 제품이 바로 예술이 된다”는 지론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과자에 예술적 감성과 정성을 담은 줄 아는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단언컨대 이제 우리는 ‘예술이 밥 먹여 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예술이 맛을 포함해 모든 감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책은 일반적인 자서전과 달리 인생의 시기별 8개의 키워드에 따라 삶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졸탕도시’, ‘선택 후 집중’, ‘몰입’, ‘복계-초월의 의지’, ‘심부재언 시이불견-마음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몸과 마음에 배어들게 하라’, ‘등고산해야 망사해할 수 있다-높은 데 올라야 멀리 볼 수 있다’, ‘동락’ 등이다. 그가 50년 가까이 경영자로 활동하면서 인생과 경영에 있어 중요한 덕목으로 추출한 것들이다. 또한 책에는 남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해태조각상, 해태제과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어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각각의 장에는 삶의 고비마다 느끼고 겪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편안한 에세이처럼, 한 조각의 과자처럼 다가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애이북스·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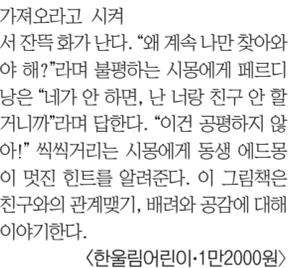
▲ 나일악어 크로커다일과 미시시피악어 엘리게이터=악어 크로커다일과 엘리게이터의 차이에 대해 알려려는 저자 텔핀 페레의 노력이 엿보인다. 엘리게이터와 크로커다일은 오랜 여행 끝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 교실로 숨어들다. 성질 급한 엘리게이터가 먼저 한 아이의 발을 짚 깨물었으나 이내 얌어치기를 당해 한방에 나가떨어진다. 그 광경을 보던 크로커다일은 아이들을 잡아먹으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민다. 두 악어는 수업 시간에 불러나가 그들의 차이점을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자세를 취해 준다. <지양사·1만2000원>

▲ 내 이름은 둘째=언니한테 치이고 동생한테 밀려 서러운 둘째 아이 연두가 소외감과 질투심을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두는 달라진 부모의 행동에 당황한다. 동생이 태어난 뒤 같은 행동을 해도 늘 꾸중을 듣기 때문이다. 이불에 지도를 그렸다고 혼나고 걷다가 휘청거렸다고 또 혼난다. 그러던 어느 날, 연두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



진다. <별글·1만2000원>

▲ 공평하지 않아=시몽은 단짝 페르디낭이 검은 펜, 쿠션, 종이접시 등 자꾸 뭔가를 가져오라고 시켜서 잔뜩 화가 난다. “왜 계속 나만 찾아와야 해?”라며 불평하는 시몽에게 페르디낭은 “내가 안 하면, 난 너랑 친구 안 할 거니까”라며 답한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씩씩거리는 시몽에게 동생 에드몽이 멋진 힌트를 알려준다. 이 그림책은 친구와의 관계맺기, 배려와 공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 문의. 010-3605-5000

